

'95년 사무노련 임투 평가

권 재 철(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들어가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시기의 활동들을 뒤돌아 보는 것은 과거 활동의 올바른 평가와 분석이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평가는 가급적 치밀해야 한다. 만일 평가가 미봉적인 것에 그치고 만다면 다음 사업역시 참담한 실패, 내지는 연례행사식의 형식적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하나의 투쟁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투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며 그 자체가 승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평가의 관점과 원칙에 있어서도 “이것도 안됐다, 저것도 안됐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 라는 패배주의적 관점이나,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회고주의적 관점이 되어서도 안되며,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한계와 오류를 정확히 가르고, 제반 오류를 솔직하고 용감하게 반성하여,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한 전망과 실천에 보탬이 되는 실사구시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95년 사무노련 임·단투 전반을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해보는 것은 '96년 임·단투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통합연맹 출범 이전의 임투

사무금융노련과 보험노련은 공히 '92년 총액임금제 반대투쟁에서 쓰라린 경험을 겪은바 있다.

당시 각 연맹은 '총액임금 5% 반대'의 기치를 걸고 투쟁하였으나, 행정감독관청(당시 재무부)까지 나서서 달려 드는 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양 연맹 산하의 업종별 협의회에서는 총액임금제 5% 타결시한인 5월 31일까지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협의별로 굳은 약속과 결의를 해왔으나, 그 약속이 개별 조합에서 깨져나가면서, 연맹과 협의회 모두 임투를 마치고 나서는 동지간의 불신을 포함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조합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데 많은 공감이가 형성 되었고, 이후 '93년 임투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보험노련의 경우 당시 노총산하에 있었던 관계로 어쩔 수없이 '93년, '94년 모두 노·경총 임금합의를 수용한 반면, 노총에 가입해 있지 않은 사무금융노련에서는 어찌하든 '92년의 집단적 패배의식을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특성상 노·경총 임금합의가 미치는 영향력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전년도의 악몽은 임투를 앞둔 간부들에게 커다란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사무금융노련 공동교섭·공동투쟁의 의의와 한계

'93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행된 임투에서 연맹은, 임금인상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NP성장률을 감안하고, 여기에 업종별 경영수지나 생산성증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선에서 임금인상 요구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섭방식으로는,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을 결의하고, 투쟁과제로는 '제도개선 요구'라는 이름으로 사회개혁적 요구들을 가지고 공동투쟁을 진행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민주노조 진영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사회개혁투쟁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사용자측의 교섭기피로 장기간의 교섭창구분쟁을 겪은 다수 조합이 지쳐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어렵게 성사된 공동교섭·공동투쟁에 비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현실적인 몫은 오히려 적었고, 당시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합의과정의 처리에 있어서도 용두사미 풀이 됨으로써, 94년 임금교섭에서는 가맹조합이 공동교섭을 회피하게 되었다.

임투 전반에 관해 모든 것을 개별 조합에 일임하고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연맹이 부분적으로 결합했던 '94임투는 어느 해보다도 조용하게 치루어 졌지만, 이러한 수동적 활동을 통해서 연맹의 역할이나 운동성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은 자명한 것이었다. 화려한 출발 뒤의 쓰라린 좌절, 그것이 통합 이전 연맹의 상태였다.

그러나 '93년 공동임투는 어찌됐든 임금인상투쟁에 머물던 조합활동이 사회개혁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용적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노조의 전망을 사업을 통해 열고자 했던 점에서, 성과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93년 투쟁의 성과를 '94년에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보완해내지 못한 점, 그리고 이후 연맹의 지도집행력 강화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며, 지금 생각해봐도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무노련의 건설 : 물리적 통합에서 화학적 통합으로

95년 사무금융노련과 보험노련이 사무노련으로 통합되었다.

2년 간에 걸친 노·경총 임금합의는 보험노련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켰고, '93년 공동임투 이후 오히려 결집력이 떨어진 사무금융노련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양 연맹의 통합은 이러한 상황의 반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손해 보험 업종의 경우, 절반은 보험노련에, 절반은 사무금융노련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 양 연맹의 통합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어찌 됐든 유사한 업종이면서도 활동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던 4만의 사무금융노련과 2만의 보험노련은 통합 이후 최초의 '95임투를 전개하기에 이른다.

임투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역시, 수년간 사업을 달리 해오며 형성된 이질적 정서와 의식의 차이 등을 어떻게 하면 좁혀낼 것인가, 통합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임투를 어찌하면 성공적으로 치루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특히 민주노총 가입결정을 하는 과정과 결정 이후 나타난 일부의 균열현상을 볼때, 임투는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부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물리적으로 통합이 완결되었지만 '95사무노련 임투가 양 연맹이 화학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디 가도 함께 가자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했지만, 이전의 한계와 더불어 현실로 존재하는 시각차를 감안할 때 '95임투는 양 연맹의 물리적 통합을 화학적 통합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이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최소강령을 통한 최대연합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이후 연맹의 지도성 확보와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맹의 임투지침은 임금요구과 사회개혁 요구를 병행하여 업종별 공동교섭을 진행한다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교섭창구분쟁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각선교섭으로 들어간다는 교섭방식의 유연성과 함께, 부득이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할 사업장에서는 개별교섭을 하되, 타 사업장과 시기를 집중하고 요구를 통일시키는 등 공동투쟁의 기초는 최대한 살려 나가는, 다양한 형식을 결합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침이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연맹 임금공동대책위원회와 각 업종별 임금공동대위가 구성되었고, 4월 중순 이후부터 연맹에 교섭권이 위임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도 '93년 공투를 경험해 본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동교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차원의 공동투쟁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자는 전술에 동의할 하고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대각선 교섭이 주종을 이룬 사무노련의 '95임투

그러나 공동교섭을 기피하는 사용자가 태반이었고, 노동조합 역시 교섭창구분쟁을 장기화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인해 연맹 임금공동대위에서는, 전 업종에 걸쳐 5월 31일까지 동일한 요구를 놓고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되, 5월 31일까지 타결이 안될 경우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로 일정을 잡았다. 이는 기존의 연맹 임투방침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공동교섭을 기피한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침에서 최저타결기준을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단위노조에 그 이상을 제시하거나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하였고, 타결사업장은 임금공동대위의 승인하에 조인을 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기업별 이면계약 등이 속속 공개되고 이는 미타결 사업장 사용자들에게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선택결 사업장을 주축으로 미타결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별 쟁의기금 1억 모금활동을 벌이고, 또,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적, 물적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은 연맹, 협의회, 각 조합 모두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이는 '95임투를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로 꼽을수 있을 것이다.

손해보험 업종의 경우, 과거에 조직이 보험노련과 사무금융노련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통합을 통해 가장 동력이 커진 조직이었다. 손해보험노조협의회의 공동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현대화재보험, 엘지화재보험 등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 노조측 요구를 전폭 수용함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대체적으로 투쟁이 마무리를 지어 갔으나, 국제화재보험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6월 초에, 예고했던 대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국제화재보험의 파업 직전까지 손해보험 업종의 전체 타결 사업장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파업에 돌입하자 나머지 미타결 사업장이 국제화재보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속속 타결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국제화재보험노조의 경우, 탄탄한 조직력과 조합원의 열기로 보아 선도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교섭대표단의 판단이 있었다. 이 노조는 20일간 성공적 파업투쟁을 통해 업종내 최고의 임금인상률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일괄 합의했으며, 교섭방식과 투쟁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연맹과의 결합과 지원을 최대한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수 있다.

신용카드업종의 경우는 '93년 공동교섭을 통해 공동파업까지 경험한 업종인데, 당시 공동투쟁의 성과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의 의지가 높은 대표적인 조직이다. 이 업종 역시 대각선 교섭을 채택했으며, 6월초 집단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경우 요구수준 이상으로 타결되고 여타 카드사들이 국민카드 수준 이상 내지는 동등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공동투쟁 속에서 업종간 임금, 복리후생 등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내면서 정연하게 임투를 마무리했다.

증권업종의 경우도 그 동안 증권업 노동자들의 현안처리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결속력이 높아진 업종이었으나, '95년 임투 돌입 직전 성과급 지급문제를 놓고 공동기준을 제시하고 공동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각사별 특성에 따라 개별 대처할 것이냐 하는 논의 속에서 의견이 집약되지 못함으로써 후유증을 겪었다. 이 영향은 이후 임투에서도 나타나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애초의 방침에서 대각선 교섭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특히 증권사에서 연맹지침 이하로 선택결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초기에는 우려가 있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동등한 수준으로 동일한 시기에 타결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그룹내 삼성생명에서 20%를 상회하는 임금을 노조측에 제시하

여 생명보험사 노조들의 공투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였으나,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을 중심으로 공동교섭을 의욕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 사업장, 중소기업도 사업장, 신설 노조, 지방 사업장,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등 규모와 내용, 투쟁의 경험이 천차만별이었던 관계로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각사의 특성과 현안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최저 공감대를 반영한 전체적 요구를 집약하여 대각선 교섭에 들어갈 것을 연맹 임금공대위를 통해 정식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섭방식은 전체 생명보험업계 노동조합들의 참여를 가능케 했고, 유명무실했던 생명보험노조협의회 회의 활성화와 연대를 이루어 냈으며, 그간 연맹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사업장과 연맹과의 결속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의 과제

'95임투의 가장 큰 특징은 어찌됐든 연맹의 '95임투지침이 대부분 투쟁 속에서 관철되었다는 점이다.

임금합의 최저수준, 교섭방식 등 연맹의 방침이 관철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도 대체적으로 수용되었던 점은 이후 연맹의 지도·집행력 강화 및 가맹조합과의 신뢰구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내용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구 보험노련과 '93년 후유증을 기억하는 사무금융노련 모두가 참여하여 전개한 통합 이후 최초의 임투치고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탈 조직 없이 연맹과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투쟁하고, 개별 조합의 타결내용이 완전 공개됨에 따라 서로 간의 이면계약에 따른 불신을 극복하고 투명한 임투를 치른 것은, 이후 새로운 투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93년의 후유증과 양 연맹의 이질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임투를 통해 실리와 단결의 기초는 확보했으나, 향후 노조운동의 전망과 방향성을 열어가는 목적의식적 임투로서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사회개혁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된 실천적이고 내실있는 활동들을 펼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조직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들끓적 쟁의에 대해 연맹차원에서 정책적, 조직적 지원이 미진했던 점도 이후의 극복 과제로 남는다.

'95년 사무노련 임투는 앞에서 밝힌 대로 최소강령의 최대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

적 목적이었던 만큼 그것에 충실했고, 물리적 통합상태를 임투를 통해 화학적 통합으로까지 끌어내는 것에 최선을 다 했다.

더디가도 함께 가야만 한다는 취지의 '95임투는, '96년 연맹의 활동폭을 더욱 넓히고 내용이 풍부한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결의 폭을 좀더 확대하고 연맹의 지도·집행력과 단위노조와의 결합도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공투기조가 깨지고 나서 사업이 오히려 지지부진해 지는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값진 일이다. 이것이 이후 투쟁을 준비할때 각오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금년도 임투 이후 근로자파견법이 노동계의 최대쟁점이 되었을 때, 사무노련이 나름대로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법안을 유보시켰던 경험도 이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 또한, 금년도 임투와 연관되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